



Gerard David, 1460-1523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창세 15,5-12,17-18

제2독서: 필리 3,17-4,1

복음: 루카 9,28-36

가톨릭 성가 입당: 127

봉헌: 32

성체: 181

파견: 491

◆ 화답송



(후렴) 주 님 은 나의 빛, 나의 구 원 이 시 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허상의 목적지를 뒤로 하기"

사제생활을 하다 보니 친한 사람들도 생겼고, 공부도 했고, 본당신부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적절히 취미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좋다. 신부되길 참으로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그것들을 잃을까봐.

신앙생활의 여정은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그 끝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광야의 여정과 같다. 그래서 가끔은 허상의 목적지를 진정한 목적지로 착각 할 때가 있다.

제대로 된 목적지와 허상의 목적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허상의 목적지는 잠시의 만족과 기쁨 뒤에 불안이 오랫동안 자리한다. 그래서 자꾸만 그 허상의 목적지에 집착하게 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체험한다. 그곳이 허상의 목적지인지 모른 채 베드로는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내려 놓고 그 순간을 즐기고 싶어 한다. 아니, 행복감을 잃을까봐 불안해 얼른 집을 지어 살자고 한다.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수없이 많은 허상의 목적지를 체험한다. 배우자를 얻었으니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자녀를 낳았으니, 직장을 얻었으니, 아파트를 샀으니, 나이를 먹고 은퇴를 했으니 이제 다 되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종종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만난다. 동료들과 친교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도 얻었으니 이 상태로 조금만 머물렀으면 한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놓칠까 불안해하며 더 튼튼한 제도를 만든다.

사순 시기다. 아쉽고 아픈 일이지만 내가 도달한 허상의 목적지와 조금씩 이별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성경맛들이기 계속)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에서 스무 번째로,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다.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교훈서다.

저자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1,1) 야고보가 썼다고 하나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주님의 형제로(마르 6,3 ; 갈라 1,19)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후대에 야고보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견해도 많다. 아마도 그리스어를 잘 하는 어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썼으리라고 생각된다.

저술 연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면 그가 순교한 62년 이전에, 후대에 야고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썼다면 1세기 경에 쓰였으리라고 본다.

저술 목적

야고보서의 독자들(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하면(2,1-4) 진실을 거스르는 말과 논쟁(3,1.13-18), 시새움과 교만 등 세속적인 욕심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오로의 가르침(로마 3,28)을 잘못 받아들여, 선행은 필요 없다며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신자들에게 진정 하느님의 자녀 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일러주려 했다. 이로써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이어서 간지애~)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항인쇄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17일	주세정 레이첼	정동주 유스토	최병은 루치아	한채희 로사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김성중	홍원표 장동업	양미숙 백승훈 이지연 박신희 유정옥 유기호 장혜윤 김영희
3월 24일	김진섭 야고보	조정환 제랄드	이재인 베로니카	이원지 베네딕타	신혜정 소화테레사	박승민 국민준	조완준 한채희	진문자 백이백 이정현 이지훈 민완준 민덕미 조리디아 김영희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연령회** 주관으로 오늘 10시 40분부터 아래성당에서
고 허갑중 Robert Bellarmine 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꾸리아**가 오늘 연도 후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양업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3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0,27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늘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직접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오늘	꾸리아
3/24	청년회
3/31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4/7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2019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 및 장소 : 4월 6일(토) 오전 11시, 아래성당
☆4월 꾸리아 정기 모임도 함께 합니다.

▶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코리안 컨퍼런스룸
주제 :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개인 어려움
많은 분들이,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사순절 동안에 모든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하며,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베네딕도 규칙서> 49장, 변형해서 인용함

▶ 청년 성서모임 봄 학기 그룹원 모집

청년 성서모임에서 새로운 학기에 성서모임을 함께할 그룹원을 모집 중입니다.

성서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눔을 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반을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 <https://goo.gl/forms/aZBlrwegE7iiYOEL2>

첫 모임 : 3월 31일 오후 1시

대표 : 양소영 엘리사벳(617.455.2245)

부대표 : 김형미 소화 데레사(929.361.0502)

▶ 참 부모가 되는 길

일시 : 3월 24일(주일) 오후 1시30분 접수시작
시간 및 장소 오후 2시~8시, 가톨릭회관

▶ 2019년 찬양 · 치유 기도회

일시 : 3월24일 주일(미사 있음) 2PM-6PM

장소 : 뉴욕 예수 성심 성당

(10 Lawton Ave, Hartsdale, NY 10530)

준비물 : 없음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 미동북부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교육피정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 시 : 4/25 ~ 28일(3박 4일)

장 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주 관 :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지도: 박홍식 신부)

문 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 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대상 : 부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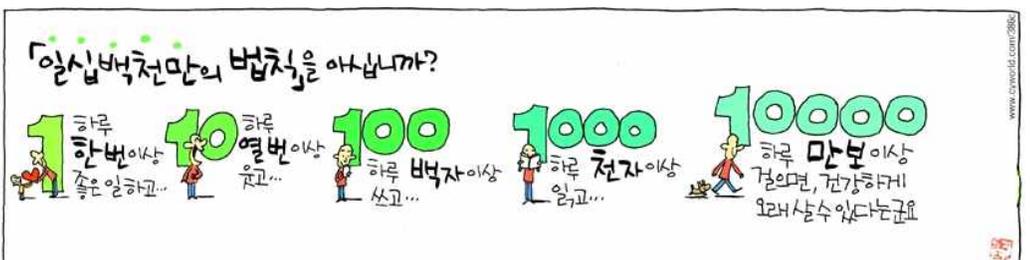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성경 맛들이기" -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서 · 유다서 · 요한 1~3서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서 열아홉 번째로, 필레몬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다. 성경 중 유일하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사제'라고 밝힌 특별한 성경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강론집'이다.

저자

초기 교회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바오로가 썼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오로의 필체는 사실적이고 반복과 단절이 많으며 비약이 심한 데 비해, 히브리서의 필체는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으며 조리 있고 차분하다. 또한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 바오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바오로가 쓴 다른 편지에서처럼 자신을 사도로 내세우지 않는 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바오로가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바오로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스어에 능통한 학자이자 사목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신자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였으리라고 추정할 뿐이다.

집필 연대

정확히 알 수 없다. 12,1 이하에 언급된 시련은 도미티아누스 황제(81-90년)때 일어난 그리스도인 박해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이에 따르면 80년 이후에 쓰인 것이다. 그리고 95-96년경에 쓰인 클레멘스 1서에 히브리서가 인용된 점으로 보아서는 90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본다. 대략 80-90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술 목적

히브리서의 독자(혹은 청중)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모임에 자주 빠지고 선행과 봉사 생활에서도 멀어지는 등 나태해졌고, 게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81-90년)의 박해로 불안해하며 배교의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 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되새기고,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자 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귀 기울여 순종하도록 촉구하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드러난 구원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약속을 일깨운다. 그럼으로써 신앙인들이 확고한 희망을 간직한 채,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이끌고 있다. (이어집니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허갑중 로버트벨라민	허정윤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나기성 미카엘	나해정 지나
김영우 요셉	김지영 유스티나
● 생미사	
이희순 글라라	박종욱 마리아
홍민철 안젤로	익명
표해심 카타리나	황인자 헬레나, 익명
강견대 마리아	김지영 유스티나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양미숙 마리아
이민영 유스티나의 부모님	이 유스티나
유민경 아셀라의 부모님	이 유스티나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김용기 요셉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경련 율리다, 전마지 마가렛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영숙 카타리나, 박정자 로사	양업회
김옥지 아가다, 강견대 마리아	양업회
전마지 마가렛,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양업회
이재호 클레멘트, 이진자 세실리아	양업회
이종환 토마스아퀴나스, 정창동 폴리나	양업회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3,600
감사헌금	\$ 0
합 계	\$ 3,600

교무금 :

임영애 민완준 엄청자 표해심 김기례 한시찬
 최우석 김영희 이영순 이정자 박인영 이영근
 이종환 조남록 이규완 정현숙 주현경 김미화
 이정진 이경자(벨) 박정자